1. **정진상 청빙위원장이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 보낸 편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타코마제일침례교회(TFBC) 성도님들께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귀 교회의   
4월7일 주보를 통해 인사 올린 적이 있는 한국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의 제3대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 정진상 장로입니다. 먼저 저희   
지구촌교회의 제3대 담임목사님으로 귀 교회 최성은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청빙 대상 목사님으로 선정되셨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여러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한 달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저와 지구촌교회의 3만여 성도도 함께 기도하고 있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해 9월 진재혁 담임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 소명에 순종하여 선교 현장으로 떠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역할 수 없는 명제임을 잘 알면서도, 온 교회가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진재혁   
목사님께서 받으신 소명을 저희가 가로막을 수 없었기에 저희들 역시 한 달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끝에 2018년 10월 21일 임시   
제직회에서 축복 속에 담임목사님의 사임을 승인하고 선교 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 구성을   
담임목사님께 일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1월11일 청빙위원회가 공식 출발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청빙위의 활동과 최종 청빙   
대상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4월 7일 귀 교회의 주보에 실린 저의 서신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4월7일 개최된 임시 제직회와 사무총회는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최성은 목사님을 95.9%라는 매우 높은 찬성율로써 차기   
담임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저희 교회 진재혁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청빙 수락 요청서를 최성은 목사님과 TFBC에   
보내드렸습니다. 최성은 목사님께서는 지난 번 서신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지구촌교회의 성도들이 제시했던 20개 안팎의 청빙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목회사역 및 선교사역 등을 통하여 충분히 그 분의 역량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순간 우리의 새 담임목사님으로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저희가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똑   
같이 경험하게 될 TFBC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TFBC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3만 성도 모두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TFBC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함께 경험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저는 나이 서른 일곱이던 1992년 가을 1년간 머무르던 미국 보스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도 부정하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실패한 청년 정도로 홀대했던 저 같은 죄인을 거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주시고 친히 저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매 순간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특별히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은혜가 하나 있다면, 주님 안에서는 영원한 단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끊어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 상에 놓고 길게 이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당시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나,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좌절감과 단절감을 갖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시대로 접어드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깨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떤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기 않고 인내로써 기다리며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끝에 최성은 목사님께서 저희의 청빙을 수락하시는 경우 그것은   
TFBC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연장선의 출발점이라고 받아 주실 수 있을런지요? 저는 지난 5개월 넘게 청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22년째 섬기고 있는 지구촌교회는 존경하는 이동원 원로목사님과 진재혁   
담임목사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리더십으로 덕분에 매우 성숙한 교회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 성장과 성숙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인 만큼   
어려움과 아픔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최성은 목사님께서 지구촌교회에 부임하시게 된다면 저는 최목사님께서 자신의 영광이나 일신의   
안일(安逸)을 추구해서 오시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있으며 오히려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신상의 안일을 구한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을,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TFBC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 최성은 목사님을 지구촌교회에 파송하신다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코마   
제일침례교회가 지구촌교회와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교회 관계로까지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TFBC와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  
2019. 4. 17.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정진상 드림